

# 여성폭력에 덧씌워진 편견의 이미지

## 영국의 프리랜서 작가 에일린 맥도날드의 「여성테러리스트」

배병삼

경희대 강사 · 정치학

에일린 맥도날드(Eileen MacDonald)가 최근 상재한 「여성 테러리스트」"SHOOT THE WOMAN FIRST", 242pp. New York : Random House)는 제목이 풍기는 반여성론적 냄새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독일 정보부 함부르크 책임자 크리스티안 뢰테의 "여성 테러리스트는 남성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또다른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 할 만하다. 언론을 통한 여성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존 관념을 위배했다는 점까지 덧붙여져 남성 테러리스트들보다 두배나 더 추악하게 그려졌다. 영국의 프리랜서 작가인 저자는 그동안 세계의 언론은 여성 테러리스트들을 주로 색정에 굶주렸든지, 미쳤든지, 냉혹하든지 또는 남자 애인이나 레즈비안 상대자에게 사로잡힌 이미지, 말하자면 '꼭두각시'로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녀들은 "다른 여성들과 하등 차이가 없으며", 나아가 "극히 정상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점이 이 책의 요지인 셈이다.

그런데 이 책 「여성 테러리스트」는 '여성' 테러리스트가 변종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오늘날 입정사나온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복수하는 여성을 비통하게 바라보는데, 그 '비통함'은 그 살인이 가정생활의 압살할 것은 환경에서 비롯된 울분의 폭발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테러리스트들은 방어적 형태의 살인이 아니라, 현상유지의 정치현상에 대한 의도된 공격적 행위인 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이 여성 테러리스트의 행위와 가정내 여성의 살해행위를 명백히 구별지우는 분기점이다. 이처럼 여성 테러리스트의 행위가 '마귀에 들린' 것이 아님을 밝힌 기초위에서 저자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상식적 이해와 동떨어진 폭력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왜 그 공격적 폭력이 인민들의 복지를 위한 성스러운 일이라고까지 정당화시키게 되었을까를 따진다.

저자 맥도날드는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요단강 西岸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투척행위를 한 사소한 여성테러리스트로부터 국제 테러단의 슈퍼스타, 팔레스타인 비행기 납치범 레일라 칼레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시도하여 그들의 略傳을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요구

하고 있는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인 E. T. A. (조국과 자유團)의 여성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그들이 고문했던 스페인 여성경찰들에 대한 개체적 복수로 정당화하고 있다. (한 E. T. A. 여성은 "그녀들의 직업은 우리를 비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끝내 비인간이 되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다"라고 말한다.) 북한의 비밀단원으로 1987년 KAL기를 폭발시켰던 김현희는 남한의 올림픽게임을 막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 테러행위를 위해 수년간 폐쇄된 곳에서 세뇌교육을 받았으며 그동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일은 물론 자신의 목숨조차 바꿀만큼 그 폭파행위가 중요하다는 훈련을 받았다.

14살바기 팔레스타인 소녀들은 그들의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하였으나 실은 어머니와 선생으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중요 행동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9년의 텔아비브행 비행기를 납치하여 유명해진 레일라 칼레드의 행동도 팔레스타인의 교의를 위한 것이라고 공식화되었으나 그녀는 자신이 휘두른 힘과 성형수술을 통해 계속되는 스타덤을 즐겼으며 그것은 바로 그 다음해의 비행기 납치로 이어졌다.

수잔나 룬코니가 이탈리아 '붉은 여단'에 가입하게 된 것은 혁명의 열정도 열정어려니와 이와함께 고독과 동료들의 친근한 사랑에 대한 갈구가 주요요소였던 것 같다. 그러나 독일의 중산층 자녀로서 독일 '적공파'에 소속된 한 여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것(fantastic)은 룬코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마약복용'과 '테러행위'가 대의명분과는 관계없이 항등호를 긋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성 테러리스트들의 증언을 설득력있게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나치게 짤막한 결론부분에서 저자는 통속적인 논리에 빠져들고 마는데, 결과적으로 왜 여성 테러리스트들이 남성 테러리스트와 다른 것인지, 또는 왜 그녀들이 다른 일반 여성과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영 마뜩지 않다. 페미니즘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녀들은 미친 것인지, 혹은 그녀들은 자신의 복수를 지킨 방법으로 행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속에서는 다루어질 만해도 거의 빠져 있다.

생각컨대 사소한 테러리스트와 명망있는 테

러리스트를 구별지우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령 얼굴없는 다수의 아일랜드나 팔레스타인의 여성 테러리스트는 생활속의 일상적 냉대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소'의 철조망을 힘껏 차버린 것이라면, 국제적인 테러스타가 된 여성은 또 다른 동기, 즉 정치적 이면서도, 개인적인 의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후자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자신의 개인적 명망에 대한 갈구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테러리즘은 그 자체 목적이면서도, 또 달리는 수단으로 구실하는 셈이다.

###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태평양 시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상점과 진열장에는 일본제품으로 가득차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 즈음부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환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저서들과 각종 신문의 연재물이 줄을 이었으며, 최근의 예로는 미국 PBS방송에서 야심적인 10회 연속 기획물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태평양에 대한 이해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할 지라도 기초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사회는 아직 유럽중심주의적 사고가 굳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것은 유럽의 학문적, 정치적, 경제적 전통속에 미국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편견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생활태도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는 편견이야말로 미국의 현재를 괴롭히는 실체라고 보는 것이 프랭크 기브니(Frank Gibney)가 쓴 「태평양 시대」("THE PACIFIC CENTURY: America and Asia in a Changing World", 596pp.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의 입론의 출발이다.

저자 기브니는 2차대전 이후 타임紙를 위시하여 뉴스위크 그리고 라이프紙의 동아시아 주재기자로서 언론계에 발을 내디딘 이래 10여년간은 브리태니카 사전 아시아관 책임자로서 활동해왔으며 1979년 이후에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소재 '환태평양 연구소'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계의 권위이다. 그가 보기에 교역이나, 과학, 경제, 그리고 정신적 중심지가 점차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

다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기브니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등 태평양 국가들의 성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이 책, 「태평양시대」는 상당히 '전통적'이다. 아니 오히려 제한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예컨대 멜빌의 소설 '백경'이 연상되는 '태평양'이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가 주제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축소시키자면 그것은 말라야반도로부터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의 한 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다. 이 점은 저자 기브니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광대한 부분, 이를테면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것이 잘된 예시이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논의가 없음은 섭섭한 일도 아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태평양 연안지역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빼먹은 데 대해 특별히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차지하면 저자 기브니가 그의 반세기에 걸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경험과 방대한 지식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정보는 대단히 가치있고, 유용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대략 앞부분에서 이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일별을 마친 후 40년대 이후 반식민통쟁 지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의 틀을 만든 이 지역 지도자들에 대한 관찰들은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가 '브리태니카 사전'의 편집-특히 중국어판 편집자로서-을 통해 획득된 깊숙한 중국사회 내면에 대한 지식은 동아시아 국가를 바라보는 기본틀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주재기자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활약한 일본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일본을 다층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아넘기기에는 눈에 걸리는 갭이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갭만은 아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저자가 중국에 대해서 고려한 것에 비할 때 이 지역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있는 점이다. 결국 그는 몇몇 히스터리 환자들이나 주장할 법한, 중세기의 중국왕조의 후예들은 언

젠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에 까지 이르는데... 글썸하다. 나아가 아시아의 유교전통과 미국의 기술 및 발명은 동전의 양면으로 짝을 이루어 10년내에 환태평양 국가들의 강력한 유대체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따위도 그러하다. 이러한 전망들은 황당한 가설로밖에 대접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브니는 레이건과 부시가 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인해 현재의 미국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난해 마지않는다.(반면 거의 잊혀진 1세기 전의 인물, 밀라드 필모어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저자의 환 태평양 국제관계에 대한 구상은—이 선상에서 그는 미국과 월남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함을 강조해 마지않는다—매우 단순하고 신선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의 책은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반복해서 인지 조금은 느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태평양 시대'는 도전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여기기에 족한 책이다.

## 암치료에 거는 잘못된 기대

“선생님, 암입니까?” 요즘 사람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때 등골에 땀이 흐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또한 암에 걸렸을 경우, 새로운 암 치료법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팔이 치료사들의 농간에 넘어갔을까? 또는 치료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을까? (1992년도 미국 예산가운데 '국립 암연구소'에만 배정된 액수가 20억달러에 달한다) 요즘 사람들은 암의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간된 두권의 책, 로젠버그 박사(Steven A. Rosenberg)와 배리 박사(John M. Barry)에 의한 「변형세포」(『THE TRANSFORMED CELL, Unlocking the Mysteries of Cancer.』 354 pp. New York : G. P. Putnam's Sons)와 그린왈드 교수(Howard P. Greenwald)에 의한 「누가 암을 만드나?」(『WHO SURVIVE CANCER?』, 280 pp.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는 서로 상이한 관점으로 암에 접근하면서도 암에 대한 미국인의 전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짝지어 읽을 만한 책이다. 앞엿것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그러

들지 않는 희망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면 뒤의 것은 그러한 미국인들의—또는 인간의—희망이 자칫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암치료에는 대강 세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수술이고, 둘째는 방사선치료, 셋째는 화학요법이다. 그런데 이 세 방법은 모두 건강한 세포에 손상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더 큰 난점은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 암세포는 때때로 수술 메스나 X-레이 주사선 그리고 화학약품으로부터 도망쳐 다른 곳에서 증식하여 몸전체를 망쳐버리곤 하는 것이다.

국립의료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외과의사들인 배리와 로젠버그는 「변형세포」를 통해 네번째 치료법인 '면역요법'을 설명하는 한편, 다섯번째 치료법인 '유전자요법'의 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면역요법이란 몸 자체의 면역체계의 능력을 증강시켜 예컨대 '독성 멜라노마'라든지 '신장암' 같은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유전자 요법이란 부모의 유전자에 암세포 퇴치인자가 강화된 세포를 투입시키는 것 같은 방식이다.

이 책 속에서 로젠버그 박사는 슈퍼스타가 되기 이전 그가 겪어야 했던 의학훈련과 학습의 고통을 회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의학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체험 스토리는 가히 전통적인 뒷골목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기껏 국민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무식꾼이었지만, 뜨거운 교육열로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호되게 가르쳤으며, 타고난 지성에 학구열의 도움을 받아 일류 의과대학들(존스 홉킨스, 하바드)을 거쳐 오늘에 이른, 소위 입지전적 인물로 그려진다.

사실 이 책은 지루하고 생물학 연구분야에 대한 자기 도취적 주장이 눈에 띄어 조금 실망스러운 점도 있다. 그의 주장은 마치 자신이 제일 깊은 곳까지 잠수해 보았다고 허풍떠는 다이버의 주장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럼에도 로젠버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특히 의학과 의학자에 대한 호기심에서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의학정책—예컨대 국립의학연구소를 통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과학 연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냉소의 기운이 팽배한 요즘 로젠버그 박사가 국책연구소를 통해 암치료에 지칠 줄 모르게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과학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예시하는 듯해서이다.

한편 「누가 암을 이기나?」는 암에 대해 보다 차분한—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책이다. 저자 그린왈드는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공행정을 가르치는 사회학자인데 그는 암치료를 '희망의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암에 대한 전문적 저작들을—암의 진단에 영향을 끼치는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변수들을 두루 망라한—충분히 검토한 후 현재의 암치료법들을 공정하고 차분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왈드 교수는 암예방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입장인데 그는 미국의 암환자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익히 알려진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그는 암의 극복이 환자의 감정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는 '신화'도 폐기한다.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을 결정짓는 가장 큰 것은 생물적 또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암을 극복할 훨씬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데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할 많은 돈과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토대로 그는 난마와 같이 얽힌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로 이어가는데 이 점에서 그는 그다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암에 관해 훨씬 공격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암에 관한 한 미국인들의 행태를 '집단적 불합리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이러한 암에 대한 지나친, 그리고 비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진실로 보아야 할 문제들, 가령 치료비용의 증가추세에 따라 기본적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중하층은 점차 더 많은 암의 희생자를 만들어 내게 되는 점은 도외시되는 것 등이 그렇다. 요컨대 암의 문제를 심리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으로 돌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 가보라인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내용이 좋은 책,  
 표지디자인이 잘된 책,  
 보기에 편하고 어법에 충실한 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책—  
 그 책을 만드는 귀하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출판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 미술/ 표지디자인, 삽화
- 편집/ 단행본 교정, 교열, 윤문, 사보편집
- 집필/ 회고록, 자서전, 광고문인작성
- 번역/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 전산/ 전산조판

출판 소프트웨어—  
**가보라인**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수운회관 1203호)  
 T : 722-8238, 720-9032, F : 722-8238